

한 여름밤 수놓을 스타2 ‘통신사 더비’

스타2 프로리그·롤챔스 결승 대진 확정

SKT T1·KT 롤스터 9일 세빛섬서 결승 스타1 때부터 라이벌…전적 SKT 우세

롤챔스는 삼성 블루·KT에로우즈 대결 삼성 2연패? KT 창단 첫 우승? 빅매치

한여름밤을 수놓을 e스포츠 축제의 주인공들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스타2 프로리그’와 ‘롤챔스 서머’ 결승 맞상대가 최근 결정됐다. 각 팀들은 각각 9일과 16일 열리는 결승에서 ‘통합 챔피언’과 ‘시즌 챔피언’ 트로피를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 특히 결승 무대를 앞 둔 각 팀들은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려야 하는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프로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 ‘통신사 더비’

먼저 9일로 예정된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을 종목으로 한 국내 최대 팀리그 ‘2014 SK텔레콤 프로리그’ 통합 결승전 맞상대는 팬들이 가장 원하는 매치업으로 완성됐다. 바로 전통의 강호 ‘SK텔레콤 T1’과 ‘KT 롤스터’의 격돌이다.

양 팀은 ‘스타크래프트1’ 종목 시절부터 엮여왔던 경쟁을 벌여왔다. 두 팀의 모기업 또한 같은 산업군에서 경쟁하고 있어 예전부터 이른바 ‘통신사 더비’로 불렸다. 그만큼 팀원들의 라이벌 의식도 강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또 두 팀 모두 ‘스타크래프트1’ 종목 시절 술하게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스타크



9일과 16일 열릴 예정인 ‘스타2 프로리그’와 ‘롤챔스 서머’ 결승에 진출한 e스포츠 팀들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프로리그 결승에서 오랜 만에 라이벌 ‘통신사 더비’를 벌이는 ‘SK텔레콤 T1(위)’과 ‘KT 롤스터’.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래프트2’로 종목이 바뀐 이후엔 우승의 축배를 들지 못했다는 점도 의욕을 불태게 하는 요소다.

이번 시즌 라운드 결승을 제외하고 양 팀의 결승은 2년4개월 만이다. 역대 결승 전

적은 4승2패로 SK텔레콤이 우세하다. 가장 최근 경기인 2012년 4월 ‘SK플래티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시즌1’ 결승 때는 폴셋트 점진 끝에 SK텔레콤 T1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당시 특급 이스포츠

던 김택용과 이영호 간의 마지막 결정전은 아직까지도 e스포츠팬들에게 명승부로 회자되곤 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 1라운드 결승에선 KT롤스터가 SK텔레콤 T1을 4대0으로 물리친 바 있어 결과를 선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편 프로리그 통합 결승전은 9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한강 반포지구에 위치한 세빛섬 미디어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삼성 블루’ 2연속 챔프 도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종목으로 한 롤챔스도 관심을 모은다. 16일 열리는 ‘HO T6 LoL 챔피언스 서머 2014’ 결승에선 ‘삼성 블루’와 ‘KT에로우즈’가 맞붙는다.

삼성 블루의 경우 최근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으로, 지난 스프링 시즌에 이어 2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 팀은 이번 결승 무대를 밟으며, 이미 10월 한국에서 결승이 예정돼 있는 ‘월드컵(LoL 월드챔피언십)’의 직행 티켓을 손에 거머쥐기도 했다.

KT에로우즈는 이번 결승 진출로 꺼져가는 롤드컵 진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직행 티켓은 아니지만 대표팀을 뽑는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번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해 서킷 포인트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팀 창단 후 첫 결승 무대라는 점도 우승 의지를 불태우는 요소다. 이번 결승은 16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치러진다. 입장권은 티켓 예매 사이트 OK티켓(www.okticket.com)을 통해 판매가 진행 중이다. 가격은 챔스존이 3만원이며, 일반석은 1만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삼성 BMF 냉장고, 독일 소비자기관 평가서 1위

삼성전자의 2도어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BMF)가 유럽서 호평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BMF 냉장고가 독일의 대표 소비자보호기관 ‘슈티프룽 바렌테스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7개국 소비자 정보지 평가 1위에 이은 유럽에서의 8번째 성과. 슈티프룽 바렌테스트는 정기 간행물인 “TEST” 8월호에서 삼성전자 BMF 냉장고가 동급 15개 글로벌 브랜드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식재료 종류에 따라 최적 온도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과 저장실 내부에 성



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능 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편의와 관련된 조작 편의성, 청소 용이성 등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전자 BMF 냉장고는 안쪽에 보관 중인 음식을 쉽게 찾고 꺼낼 수 있는 슬라이딩 선반과 부피가 큰 식재료나 용기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랍식 박스 등을 갖춰 공간 효율과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또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를 채용해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디자인도 메탈 재질의 외관과 블루 LED 디스플레이로 세련미를 갖췄다.

김명근 기자

LGU+, 제주도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

LG유플러스는 제주도의 무선 버스정보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성공리에 마치고, LTE망을 통한 상용서비스에 들어갔다. 8월 현재 제주도 시내버스 466대에 LTE 모듈이 탑재됐고, 110개 정류소에 설치된 안내기가 LTE망을 통해 버스 도착예정 정보를 안내 중이다. 제주도는 LTE망을 활용한 버스 및 정류소안내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LTE 버스정보시스템은 ‘차량 내 단말기-버스종합관제센터-정류소 안내기’ 사이를 모두 LTE 무선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각종 대용량 데이터를 옮김 없이 볼 수 있으며,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SKT ‘전화’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팅 적용

SK텔레콤은 라이나생명과 모바일·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 협력 및 신규 정보통신기술(ICT)과 보험상품을 접목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통화 플랫폼 ‘전화’의 핵심·부가 기능을 라이나생명의 텔레마케팅에 적용할 예정이다. 상당원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상담 시 음성 이외에 영상과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또 LTE영상 통화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 ‘AoA’(Ad on Air)를 라이나생명의 영상 통화 광고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



및 분석 솔루션 등의 노하우를 향후 라이나생명의 고객 패턴 분석 및 데이터 컨설팅 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행성 눈병 급증…눈 비비지 말고 손 자주 씻으세요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5주 연속 증가 물놀이·외출 후 손씻기로 예방 가능

무더위의 절정과 함께 물놀이시절로 피서객이 몰리며 유행성 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손씻기가 예방 대책이라며 이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5주 연속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0~26일(30주차) 보고된 환자 수는 1000명당 19.2명으로, 전 주에 보고된 17.9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도 1000명당 2.4명으로 전 주의 1.2명보다 많았다.

유행성 눈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눈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눈의 충혈과 통증, 이물감, 눈물, 눈부심, 결막 아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유행성 각결막염은 발병 후 2주까지, 급성출혈성 결막염은 최소 4일까지 전염력이 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 등에서 유행성 눈병 감염 가능성이 높고, 전파가 빠르다. 최근 발생한 유행성 각



결막염 전체 환자의 36.4%, 급성출혈성 결막염 환자의 49.2%는 0~19세. 따라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눈병 예방법은 물놀이 후에는 손을 자주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눈병 바이러스는 올바른 손씻기만으로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고, 수건 등 개인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행성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제약회사, 병·의원에 ‘15억6000만원 뒷돈’

쌍별제 시행 불구 리베이트 관행 여전 제약사 4명 의·약사 41명 불구속 기소

2010년 11월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별제’가 시행됐지만 제약회사와 의사·약사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 의사와 약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한 모 제약회사 영업부장 A(55)씨 등 임직원 4명을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 B(3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의사·약사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제약회사 임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와

약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의사 B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청탁받은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약회사 임직원들은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장’을 통해 뒷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에서 사용 중인 카드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사들에게 뒷돈을 건넸다.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에 별개로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처 의원과 약국에 임의대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다시 뒷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재학 기자

■ 해외여행에 유용한 온라인서비스

무료숙박에 가이드가 덤 알면 여행이 즐거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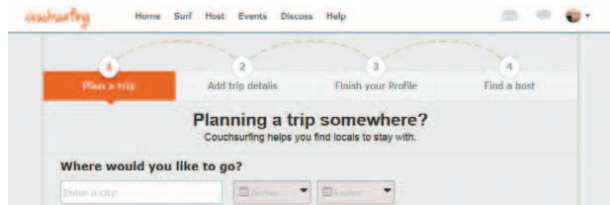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결정, 여행 일정까지 준비할 게 많다. 가이드북도 많고 온라인에는 각종 정보가 넘치지만, 정작 초보 여행객은 ‘무얼 봐야할까’ 막막할 뿐이다. 이럴 때 준비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덤으로 즐거운 경험까지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온라인 서비스가 있다.

●트립어드바이저(http://www.tripadvis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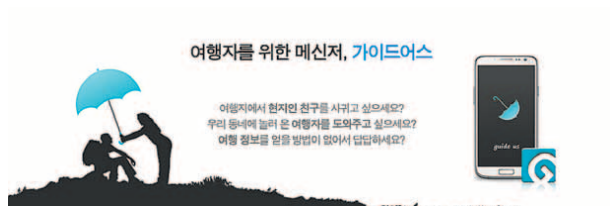
자유여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챙겨봐야 할 사이트.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커뮤니티사이트로 현지 여행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 정보가 비교적 객관적이다. 항공권부터 숙박, 외식에 걸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2013년 기준 370만 개의 숙박, 음식점, 관광명소에 대한 리뷰 및 평가가 1억5000여만 건에 달한다. 특히 해외 숙소를 정할 때 리뷰와 평점이 아주 유용하다.

●카우치서핑(http://www.couchsurfi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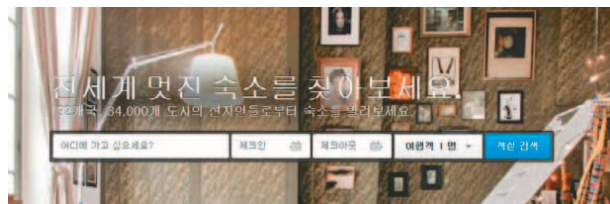
여행지의 현지인으로부터 무료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재능기부 성격의 서비스. 마치 여행 중 자동차를 하차하듯 이길하듯 숙소를 구할 수 있다. 저렴한 여행을 원하는 배낭여행을 준비한다면 주목할만 하다. 10만개 이상의 도시에 7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있다.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정보를 공유하고 운이 좋으면 무료 가이드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어스(http://www.guideus.co.kr/)



현지인과 여행자를 연결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사는 지역을 등록하면 여행자를 도울 수 있고, 반대로 여행자는 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 타임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외국 친구를 사귀거나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여행자에게 유용하다.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에어비엔비(http://www.airbnb.co.kr/)



숙소가 필요한 여행자와 방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고 싶은 집주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숙소를 검색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현지 가정집에서 숙박할 수 있어 가격이 호텔보다 저렴하고 민박 특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스카이스캐너(http://www.skyscanner.co.kr/)



전 세계 항공편의 가격을 분석 및 비교해 예약하는 서비스. 27개국의 언어와 70개국의 통화로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 수수료 없이 호텔, 휴가 패키지, 렌트카 등도 검색 가능하다. 김재필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kobaukid